

‘WBC 음주 파문’ 징계 수위 논란

야구 팬들 ‘갑론을박’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선수들의 음주 논란으로 징계를 받아 야구팬들의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안겨준 실망에 비하면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하지만 음주 사실만으로 과도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김광현(SSG 랜더스), 이용찬(NC 다이노스), 정철원(두산 베어스)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들 세 명이 WBC 출전 기간 중 음주를 한 데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앞서 지난달 말 한 유튜브 채널은 WBC 대회 기간 대표팀 일부 선수가 유흥업소에서 음주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WBC에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실망을 금치 못한 팬들은

야구위원회, 사회봉사·벌금 수준에서 결정 “출장정지 나오지 않아… 너무 가벼워” 비판 일각선 “범죄자 취급하는건 과해” 목소리도

실상가상으로 일부 선수들이 대회 기간 내 술을 마셨다는 소식이 흘러 나오자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KBO는 지난달 31일 해당 선수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WBC 기간 동안 경기 전날 밤 스낵배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이동일인 3월7일과 휴식인 전날인 3월10일에 해당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KBO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후 결과를 발표했다. KBO는 “김광현은 선수단이 도쿄에 도착한 7일과 일본전 종료 직후인 11일 두 차례 해당 장소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철원은 11일 한 차례 김광현과 동석했고, 이용찬은 일본전 종료 후 11일 두 선수와 별도로 해당 장소에

출입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음주 관련 처벌 조항은 없지만 국가대표 운영 규정 13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KBO는 규약 제15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 대회 기간 2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해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광현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1차례 유흥주점을 출입한 이용찬, 정철원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출장정지 등의 내용 대신 사회봉사와 벌금 수준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야구 팬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분노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과건을 간 대표팀이 술을 마셨고, 고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김광현이 대회 기간 내 두 차례 술을 마셨는데 출장정지 징계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 가벼운 징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음주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는데도 KBO가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징계가 과하다는 여론도 있다. 일부 팬들은 “성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포포라んに 세우는 등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과하다”거나 “경기 전날에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 “김광현이 그동안 국가대표로 활약한 공로가 있는데 너무 삼한 처사다”, “빨리 세 선수의 엔트리 등록을 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공희용(왼쪽)과 김소영이 태국에서 열린 2023 태국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슈퍼 500 대회 여자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전북은행 배드민턴부 제공)

공희용, 또다시 세계 정상에

태국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슈퍼500서 여자복식 우승

전북 여자 배드민턴 강관인 공희용(전북은행)이 또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다.

8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태국에서 열린 2023 태국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슈퍼 500 대회에서 공희용이 여자복식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과 짝을 이뤄 출전한 공희용은 결승에서 만난 태국팀을 2대0으로 누르고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위상을 다시금 높였다. 이번 우승으로 공희용은 지난 3월

영국에서 열린 전영오픈 여자복식 금메달에 이어 올해 2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김효성 감독은 “공희용 선수의 실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전북 배드민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부상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 올해 예정 돼 있는 각종 대회에서도 실력을 뽐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희용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23 싱가포르 오픈 월드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뉴시스

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유치신청도시 관리 강화”

대한체육회는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 총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5일 진행된 국가대표선수회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논의 결과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 주요 내용은 유치 단계부

터 대회 준비 전 단계에 걸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및 협약서 위반 시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에서 유치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이달 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미래·희망의 땅 새만금 질주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대회, 11일 방조제서

전북도는 제7회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대회가 오는 11일 새만금방조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전북롤러스포츠연맹이 주관하며 전북도와 군산시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42km 21km 11km 세 가지 코스에 경쟁 및 비경쟁, 장년부·청년부 등 9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11km 비경쟁 부문은 인라인을 탈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새만금대회는 인라인스포츠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에서 열려 인라인 애호가 사이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대회로 손꼽힌다.

도심 속을 순환하는 다른 대회 코스와는 달리 비드러움을 가리며, 쪽 뱀은 방조제에서 질주 할 수 있는 강점

은 인라인 애호가들이 새만금 대회를 다시 찾게 하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대회는 2015년 최초 대회 개최 이후 참가선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코로나 여파로 2020, 2021년 개최되지 못했으나, 2022년 더욱 성장하며 국내 최고 인라인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 역시 접수 시작부터 관심이 뜨거웠으며 3,000명의 선수와 관람객들이 새만금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브랜드 인지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라인 마라톤대회는 주행코스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대회 전날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회장 인근에서 식사와 숙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비경쟁 부문에 어린선수들의 참가율이 높은 만큼 어린이를 동



‘메시, MSL 인터 마이애미 할류’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피오리토 식당에서 이곳 직원 이 리오넬 메시 벽화를 사진으로 담고 있다.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는 이날 미국프로축구(ML)의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반한 가족단위 관람객도 많아 인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가 진행되는 11일에는 오전 8시

부터 오후 1시까지 새만금 방조제 도로 중 일부가 통제돼 일부 구간은 수변도로(보조도로)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